

강릉 초당동 제1호고분 (江陵 草堂洞 第1號古墳)

金 秉 模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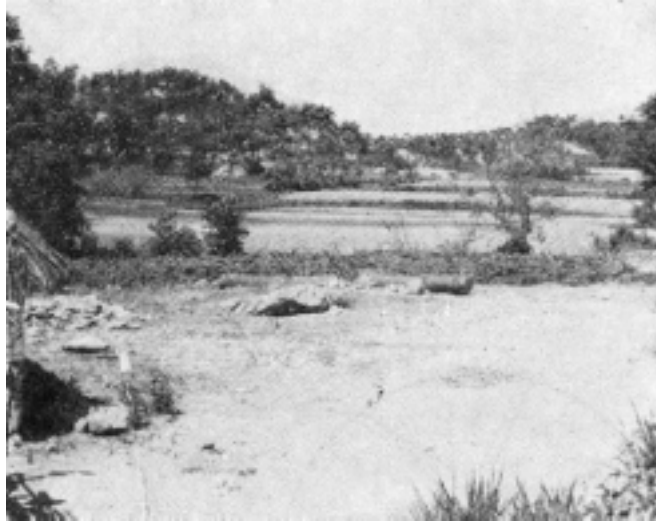
1. 조사경위
2. 고분의 구조
3. 출토유물
4. 맺는 말

1. 조사경위(調查經緯)

본(本) 고분(古墳)은 강릉시(江陵市) 초당동(草堂洞) 182번지에 소재(所在)하는 공지(空地)에 공회당(公會堂)을 건축(建築)할 목적(目的)으로 정지작업(整地作業)을 하던 중(中) 유물(遺物)이 발견(發見)되어 이것이 강릉시청(江陵市廳)에 보고(報告)됨으로써 강릉시(江陵市) 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인 홍덕유(洪德裕)씨(氏)의 감정(鑑定)을 거쳐 알려지게 된 것이다.

1969년(年) 8월(月) 2일(日) 필자(筆者)가 현지(現地)에 도착(到着)하여 본즉 현장(現場)은 강릉시(江陵市) 동편(東便) 해안지대(海岸地帶)에 위치(位置)한 얇은 사질지대(砂質地帶)로서 구릉(丘陵)과 구릉(丘陵) 간(間)에 민가(民家)와 전답(田畓)이 있는데, 고분(古墳)의 동북(東北)으로는 평지(平地), 서(西)쪽은 야산(野山)이고 고분(古墳)은 초당동(草堂洞) 민가(民家)들 한 복판에 위치(位置)하고 있었다. 동편(東便) 임해(臨海)지대(地帶)에는 강릉(江陵) 교육대학(教育大學)이 있고 그 주위(周圍)에는 송림(松林)이 우거져 있는데 유성열(柳成烈) 교대학장(教大學長)에 의(依)하면 학교(學敎) 신축공사(新築工事) 때 마다, 다량(多量)의 토기(土器)가 출토(出土)된다고 하며 학교당국(學敎當局)에서도 지금까지 출토(出土)된 토기(土器) 십여(十餘)점(點)을 보관(保管)하고 있는바 그 토기(土器)에 대(對)하여는 다음 기회(機會)에 소개(紹介)하겠다.

본(本) 고분(古墳)은 초당동(草堂洞) 포남동(浦南洞) 일대(一帶)에 산재(散在)한 고분군중(古墳群中)에서 우연(偶然)히 발견(發見)된 한 예(例)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지역(地域)에서 고분(古墳)이 조사(調查)될 경우(境遇)를 생각하여 편의상(便宜上) 초당동(草堂洞) 제일호분(第一號墳)이라고 붙여보았다.



發掘前 全景

정확(正確)한 소재(所在)는 강릉시(江陵市) 중심부(中心部)에서 동북(東北)쪽 해변(海邊)으로, 제일호분(第一號墳)은 초당동(草堂洞) 동사무소(洞事務所)에 서접(西接)하고 있으며, 동사무소(洞事務所)로부터 동편(東便) 약(約) 500m 지점(地點)에 강릉교육대학(江陵教育大學)의 건물(建物)이 있는데 학교 부지(學教 敷地)가 고분군(古墳群)이 위치(位置)한 곳이다.

2. 고분(古墳)의 구조(構造)

대략(大略) 동서(東西)를 장축(長軸)으로 하는 장방형(長方形)의 석실고분(石室古墳)으로 동측(東側)의 벽(壁)이 무너져 없어져서 간축(間軸)의 길이는 알 수 없으나 남아있는 부분(部分)만도 길이 450cm였으므로 원래(元來)의 길이는 그 이상(以上)이었을 것이다.

저변(底邊)의 폭(幅)은 140cm, 상부(上部)의 폭(幅)은 97cm, 바닥에서 개석(蓋石)까지의 높이는 150cm였다. 폭(幅)이 비교적(比較的) 넓은 석실분(石室墳)에서 흔히 쓰이는, 폭(幅)의 단면(斷面)이 밑에서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梯形)의 구조(構造)였으며 발굴당시(發掘當時)에 남아있던 개석(蓋石)은 길이 215cm, 폭(幅) 130cm의 타원형(橢圓形)에 두께 30cm 가량의 화강암(花崗巖) 하나만이 원위치(原位置)에 놓여 있었다. 무너진 동벽(東壁) 부근에 대소(大小) 삼개(三個)의 개석형(蓋石形)의 돌이 아무렇게나 굴러 있었는데, 이는 고분(古墳)의 개석(蓋石)이었던 돌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였다. 바닥은 주먹만한 천석(川石)을 깔아 놓았는데 점토(粘土)를 돌 사이에 바른 흔적(痕迹)은 없었다. 물론(勿論) 고분(古墳) 축조(築造) 당시(當時)의 해안선(海岸線)이 현재(現在)와 같았는지는 모르지만 현재(現在)도 주위(周圍)의 지질(地質)이 모두 모래뿐이어서 돌도 몹시 구(求)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점토(粘土)는 도무지 찾아 볼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理由)중(中)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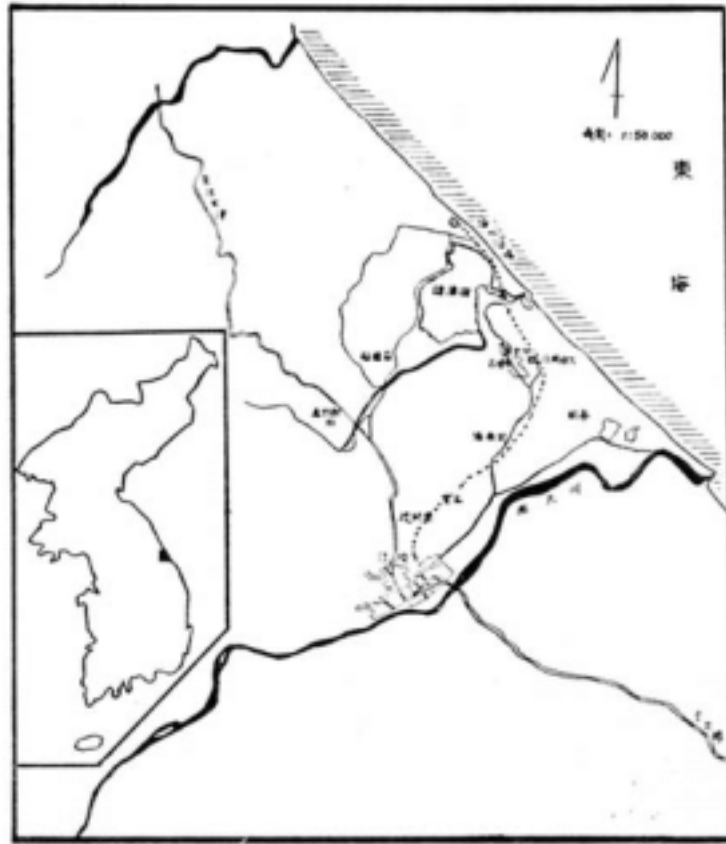


圖 1

圖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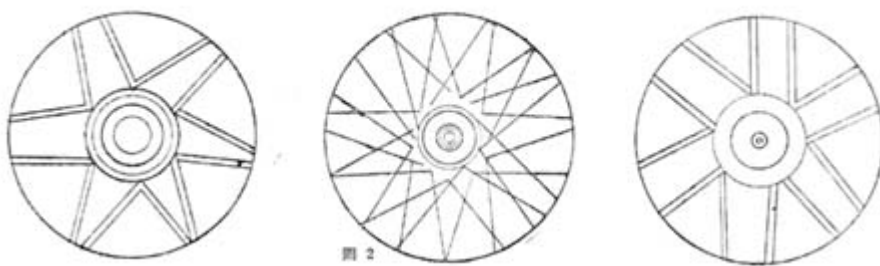


圖 2

도면(圖面)에서 평면도(平面圖)의 동편(東便)이 서편(西便)보다 폭(幅)이 넓어 보이는데 그것은 동측(東側)이 무너질 때 벽면(壁面)이 남북(南北)으로 밀려서 원래(元來)보다 넓어 진 것인지 원래(元來)의 구조(構造)가 그랬었는지는 파괴상태(破壞狀態)가 심하여 밝힐 수가 없었다.

대체(大體)로 좌서측(櫛西側)에 토기(土器)와 마구(馬具) 등이 집중적(集中的)으로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묘(墓)의 주인공(主人公)은 동침(同枕)하였던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現在)의 유구(遺構)에는 입구(入口)나 이도(羨道)의 흔적(痕跡)은 없었다.

3. 출토유물(出土遺物)

본(本) 고분(古墳)에서 출토(出土)된 유물(遺物)을 대분(大分)하여 두 종류(種類)로 설명(說明)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는 필자(筆者)가 조사(調査)할 때 출토(出土)된 유물(遺物)이고 다른 일군(一群)은 필자(筆者)가 도착(到着)하기 전(前)에 작업인부(作業人夫)들에 의(依)하여 발견(發見)된 것이다.

1) 조사시(調査時)에 출토(出土)된 유물(遺物)

토기류(土器類)

1. 적색토기(赤色土器) 소감(小罎)

신라고분(新羅古墳)에서 흔히 출토(出土)되는 적색(赤色)의 소형토기(小形土器)로서 높이 5.6cm, 구경(口徑) 9.5cm, 두께 0.7cm로 경주(慶州) 부근에서 출토(出土)되는 것들보다는 비교적 질(質)이 견고(堅固)하고 기형(器形)은 평저(平底), 구연(口緣)은 약간 외반(外反)하고 있다. 뚜껑도 있는데 꼭지는 뚜껑의 축소(縮小)된 상사형(相似形)으로 뚜껑을 뒤집어 놓은 형태(形態)로 달려 있다(圖 4의 右).



圖 3

2. 적색승석문호(赤色繩蓆文壺)

부분적(部分的)으로 파손(破損)된 것으로 기저부(器底部)가 없어서 높이는 불명(不明)이나 복경(腹徑)이 31cm, 구경(口徑)은 19cm 임을 알 수 있고 기형전체(器形全體)의 선(線)의 흐름으로 보아 원저(圓底)로 보인다. (圖 4의 左) 질(質)은 태토(胎土)가 곱고 경도(硬度)는 적색토기(赤色土器)와 신라토기(新羅土器)의 중간(中間)쯤 된다. 색(色)은 구울 때 불에 닿는 부분(部分)은 적회색(赤灰色)이고 불에 닿지 않은 기내면(器內面)이

나 기벽(器壁) 속은 붉은 색(色)이다. 기형(器形)은 목이 짧고 구연(口緣)은 외반(外反)되어 있다.

3. 유대장경호(有台長頸壺)

① 고(高) 23cm, 복경(腹徑) 19cm, 구경(口徑) 14.7cm로서 태(台)가 있었는데 깨어짐(圖 5의 左)

② 고(高) 28cm, 복경(腹徑) 24.5cm, 구경(口徑) 16cm, 이것도 역시 태(台)가 붙어있던 흔적(痕跡)이 남아있다.(圖 5의 中)

③ 고(高) 19cm, 복경(腹徑) 22.5cm이고, 구경(口徑)은 경부(頸部)가 모두 깨어져 알 수가 없다. 태(台)도 달려있던 것인데 깨어지고 흔적(痕跡)만 남아있다. (圖 5의 右)

4. 대옹(大甕)

① 고(高) 54cm, 복경(腹徑) 48.5cm, 구경(口徑)은 외반(外反)되었으며 기벽(器壁)을 두드려서 견고(堅固)하게 할 때 생긴 승석문(繩蓆文)이 남아 있고 밑은 원저(圓底)로서 평지(平地)에 놓기는 불안정(不安定)하다. (圖 6의 左)

② 고(高) 48cm, 복경(腹徑) 49cm이고, 구경(口徑) 24.5cm. 역시 원저(圓底)로 불안정(不安定)하고, 표면(表面)에는 제작시에 두드린 자국이 있다. 구연(口緣)은 외반(外反) (圖 6의 右)

5. 유대장경호(有台長頸壺)

① 현고(現高) 27cm, 복경(腹徑) 23cm, 구경(口徑)은 깨어져서 미상(未詳)이다. 태부(台部)의 투창(透窓)은 엇갈린 2단형(段形)이고 창(窓)수(數)는 상하단(上下段)이 각각(各各) 9개(個)이다. (圖 7의 右)

② 고(高) 38cm, 복경(腹徑) 24.5cm이고, 구경(口徑) 19cm, 태부(台部)에 투창(透窓)이 엇갈린 2단형(段形)이고 견부(肩部)에 일조(一條)의 선(線)이 있으며 경부(頸部)에도 이조(李朝)의 선(線)이 있다. 투창(透窓)수(數)는 상하(上下) 각각(各各) 9개(九個)이다. (圖 7의 左)

③ 고(高) 32cm, 복경(腹徑) 23cm이고, 구경(口徑) 16.7cm. 태부(台部)에는 7개(個)의 투창(透窓)이 일단(一段)으로 뚫려 있다. (圖 7의 中)

2) 철물(鐵物)

1. 철등자(鐵燈子) 1쌍 (圖 8)

2. 철도(鐵刀) 길이 35cm, 폭(幅) 3cm로서 병부(柄部) 쪽이 파손(破損)되어 전장(全長)은 알 수가 없다. (圖 9의 上)

3. 철도편(鐵道便) 도신(刀身)의 중간(中間)이 잘라져서 끝 부분(部分)만 남아 있다. 현재(現在) 남아있는 길이는 20cm, 폭(幅)4cm이다. (圖 9의 中)

4. 철모(鐵鉢)길이 18.5cm (圖 9의 下)

5. 철□(鐵□) (圖 10)

6. 행엽(杏葉)과 □구(□具) 등과 기타 파편(破片) (圖 11)

3) 공사중(工事中) 출토(出土)된 유물(遺物)

1. 호(壺) 원저(圓底), 고(高) 27cm, 복경(腹徑) 25.8cm, 문양(文樣)은 두드려서 생긴 승석문(繩蓆文), 짧은 경부(頸部)는 외반(外反)되어 있다.

2. 유태장경호(有台長頸壺) 현고(現高) 32.5cm, 복경(腹徑) 27.5cm, 구경(口徑) 27.6cm, 경부(頸部)에 삼조(三條)의 요선(凸線)이 이개처(二個處)에 있음. 그 사이에 파상문(波狀文), 견부(肩部)에 2조(條)의 파상문(波狀文)이 있다. 태부분(台部分)은 파손(破損)되어 흔적만 있음 (圖 12의 右)



圖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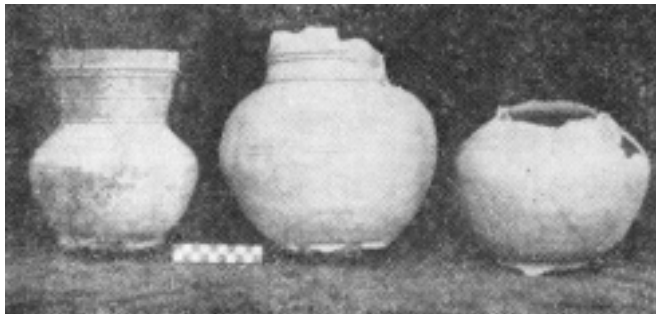


圖 5



圖 6



圖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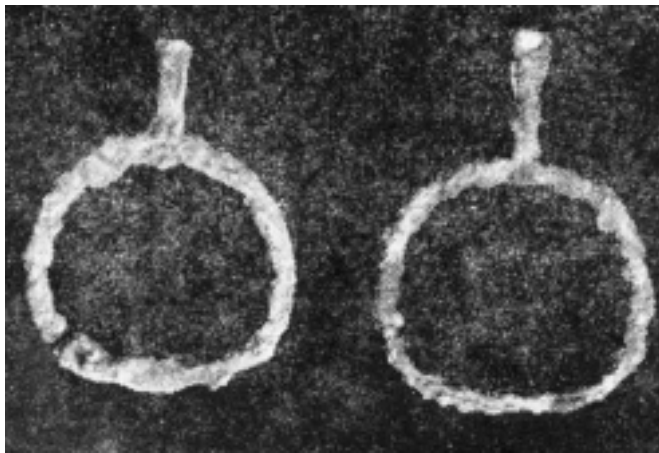


圖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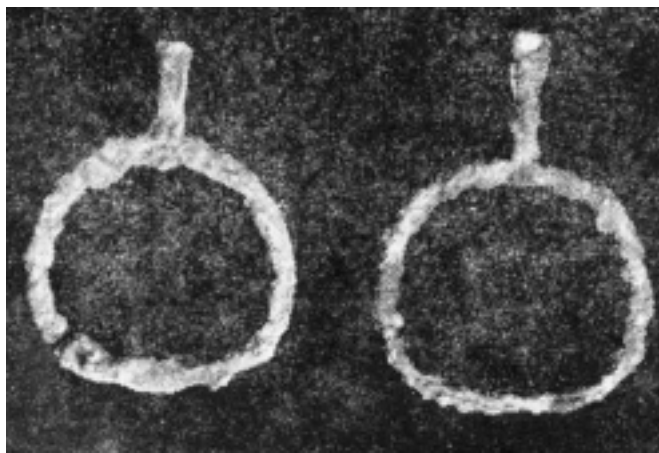


圖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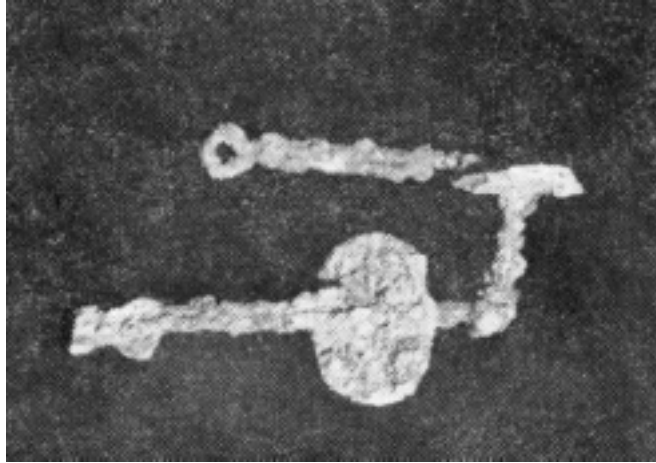


圖 10

3. 유대장경호(有台長頸壺) 고(高) 25cm, 복경(腹徑) 25.8cm. 구경(口徑) 18.5cm. 태부분(台部分)의 투창(透窓)은 상하(上下)가 엇갈린 2단(段), 투창(透窓)수(數)는 상하(上下)가 각각(各各) 10개(個)씩이다. 견부(肩部)에 요선(凹線)이 한줄, 경부(頸部)에 위로부터 철선(凸線)이 일조(一條), 견부(肩部)와 경부(頸部)의 경계(境界)가 일조(一條)의 철선(凸線)으로 구분(區分)되어 있다. (圖 12의 左)

4. 고배(高杯) 9개(個)

모두가 유개식(有蓋式)으로 엇갈린 2단(段)투창(透窓)인데 투창(透窓)수(數)가 상하단(上下段) 각기 3개(個)씩 인 것이 5개, 4개(個)씩인 것이 4개(個)이다. (圖 13)

5. 고배개(高杯蓋) 8개(個)

단추형 꼭지가 달린 것이 6개 나머지 2개(個)는 단추형 장식에서 중심부(中心部)가 오목한 것이다.

6. 소형이부완(小形耳付盥)

고(高) 5.8cm, 구경(口徑)이 7cm의 소형(小形)으로 원저(圓底), 직립구연(直立口緣)이다. 내부(內部)에는 약간의 자연유(自然釉)가 흘러 있다. (圖 14의 左)

7. 소형(小形) 단지

고(高) 11cm, 복경(腹徑) 14.5cm, 구경(口徑) 10.2cm. 경질(硬質)로서 거의 평저(平底)이고, 구연(口緣)은 외반(外反)되어 있으며 소성시(燒成時)의 고열(高熱)로 동체(胴體)상부(上部)와 기내면(器內面)에 자연유(自然釉)가 다량(多量)으로 흘러 있다. (圖 14의 左)

8. 적색토기(赤色土器) 완(盥)

고(高) 55cm, 구경(口徑) 9.5cm, 평저(平底), 구연(口緣)외반(外反) (圖 15의 左端)

9. 적색토기(赤色土器) 개(蓋) 이개(二個)

① 경(徑) 9.5cm, 단추형 꼭지가 기형(器形)에 비(比)하여 큰 것이 달려 있다. (圖 15의 좌로부터 3번째)

② 경(徑) 11cm, 단추형 꼭지 (圖 15의 右端)

10. 토구(土球)(圖 16의 中) 표면(表面)은 마연(磨研)되어 매끄럽고 적색토기(赤色土器)와 같은 질(質)의 구형(球形)으로 직경(直徑)이 6.8cm인데 사방(四方)과 상하(上下)육개처(六個處)에서 구(球)의 중심(中心)을 향(向)하여 각각(各各) 6~8개(個)의 침공(針孔)이 뚫려있다. 그리고 각(各) 공군(孔群)을 연(連)하여 2조(條)의 요선(凹線)이 남아 있다. 구멍(孔)들이 반대(反對)편까지 관통(貫通)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요선(凹線)을 따라 끈을 걸에다 둘러매어서 썼을 것으로 보인다.

11. 도제방추차(陶製紡錘車) 3개(個)

① 경(徑) 3.7cm, 공경(孔徑) 0.7cm, 후(厚) 1.2cm.

② 경(徑) 3.7cm, 공경(孔徑) 0.7cm, 후(厚) 1.5cm.

③ 외경(外徑) 3.8cm, 공경(孔徑) 0.6cm, 후(厚) 2cm.

12. 동제마탁(銅製馬鐸) (圖 16의 右下)

일부(一部)가 깨어진 것으로 현재(現在) 길이 5.6cm이고 설(舌)도 없음.

13. 유리구슬

7개(個)의 유리구슬이 발견(發見)되었는데 색(色)은 남청색(藍青色)과 회색(灰色)의 두가지이다. (圖 17) 이들 유리구슬로 보아서는 곡옥(曲玉)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공사중(工事中) 발견(發見)된 것이라 확인(確認)할 길이 없어서 유감(遺憾)이었다. 참고(參考)로 출토된 유물(遺物)을 도표(圖表)로 보면 다음과 같다.

4) 요약(要約)

	조사(調査)된 유물수(遺物數)	공사중(工事中) 발견(發見)된 유물수(遺物數)	계(計)
적색토기소감(赤色土器小罏)(개부(蓋付))	1	2	3
적색승석문호(赤色繩蓆文壺)	1		1
유대장경호(有台長頸壺)(이단투창(二段透窓))	2	1	8
유대장경호(有台長頸壺)(일단투창(一段透窓))	1		
유대장경호(有台長頸壺)(合部分破(合部分破))	3	1	
고배(高杯)		9	9
고배개(高杯蓋)		8	8
원저호(圓低壺)		1	1
소형(小形)단지		1	1
소형이부완(小形耳付盥)		1	1
토제추(土製錘)		1	1
도제방추차(陶製紡錘車)		3	3
철등자(鐵鐙子)	1쌍		1쌍
철도(鐵刀)	2		2
철모(鐵鉞)	1		1
철비(鐵轡)	1		1
행엽(杏葉) 교구(交媾)등과 파편	다수(多 數)		다수(多數)
동제마탁(銅製馬鐸)			1
유리구슬			7

상술(上述)한 것을 요약(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형식(形式)은 대형(大形)개석(蓋石)을 덮은 일봉토(一封土) 일석실(一石室)로서 폭(幅)은 아래가 넓고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양형(樣形)에다가 무이도(無羨道)라는 것과 동침(東枕)이라는 점.

② 토기(土器)는 엇갈린 이단투창(二段透窓)의 고배(高杯)와 구연(口緣)이 외반(外反)된 유대장경호(有台長頸壺)를 중심(中心)으로 적색토기(赤色土器), 마구철도(馬具鐵刀), 토추(土錘), 방추차(紡錘車) 등과 함께 유리옥(玉)도 출토(出土)되었다.

③ 초당동(草堂洞) 주변(周邊)에는 신라토기편(新羅土器片)을 찾아볼 수 있는 고분군(古墳群)이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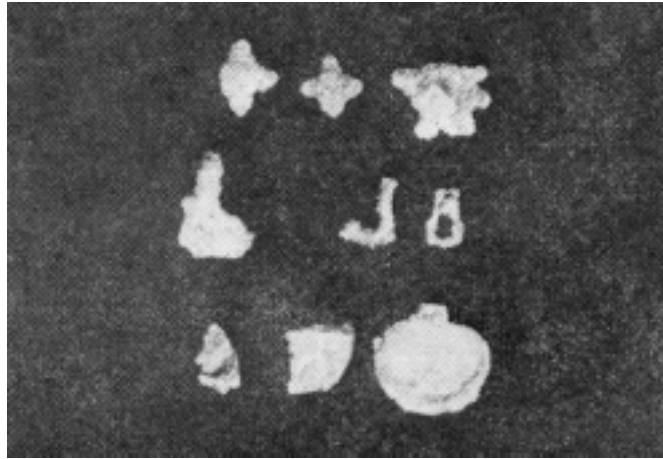


圖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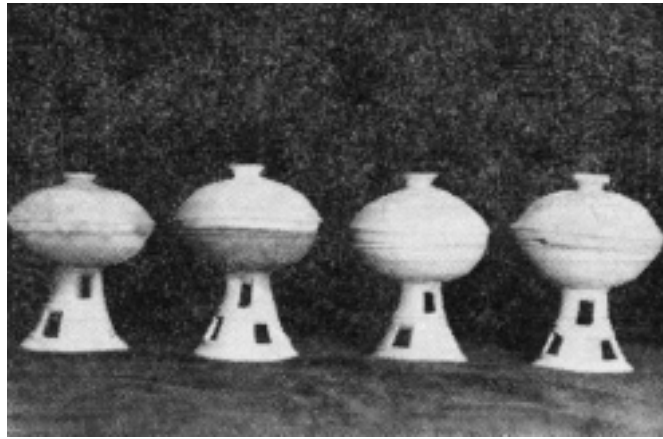


圖 12



圖 13



圖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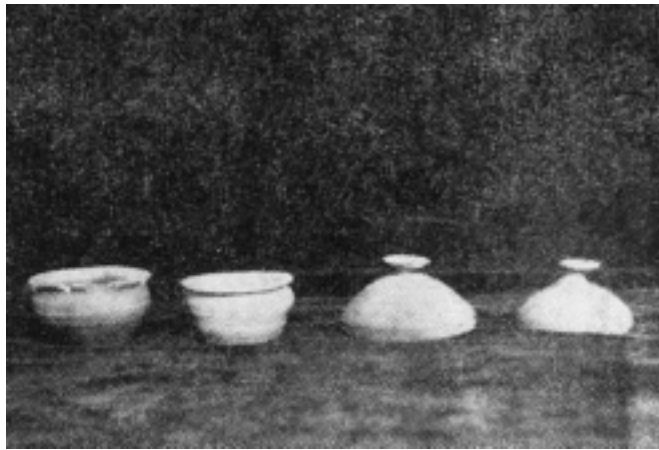


圖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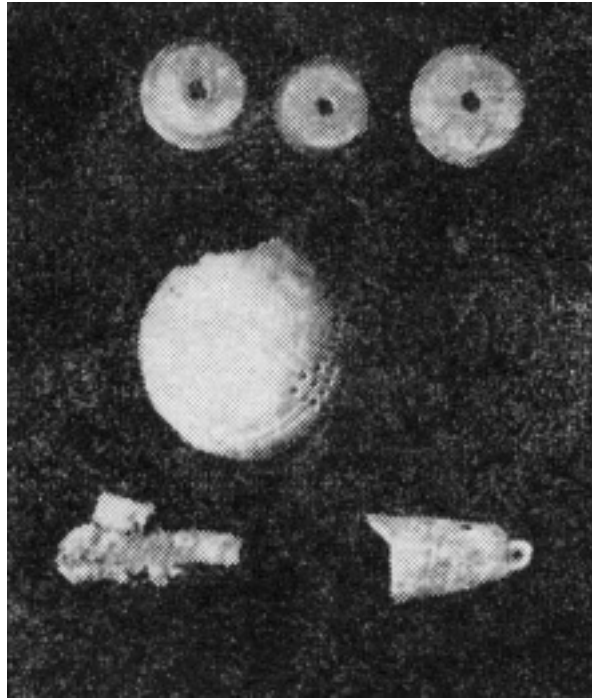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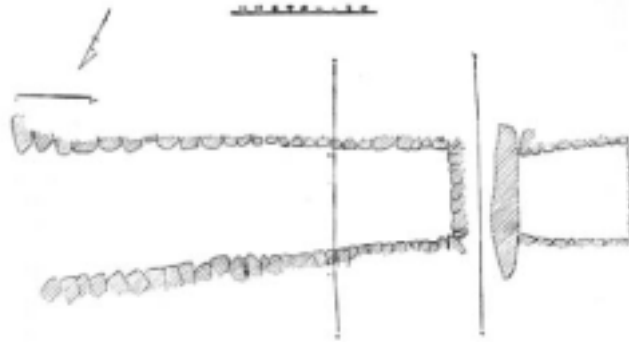


圖 16



圖 17



草堂洞出土高杯蓋의 文樣

4. 맺는 말

영남지방(嶺南地方)의 석실고분(石室古墳)은 낙동강(洛東江)을 사이에 두고 석상분(石箱墳)을 확대(擴大)한 것 같은 수혈식(竪穴式) 석곽묘(石槨墓)와 시체(屍體)를 옆으로 밀어 넣는 횡구식(橫口式)이 있는데, 수혈식(竪穴式)은 지금까지의 조사(調査)로는 낙동강(洛東江)의 서안-함안고령(西岸-咸安高靈) 김해등지(金海等地)에 있고 횡구식(橫口式)은 주(主)로 낙동강(洛東江)의 동안(東岸)-대구(大邱) 창녕(昌寧)과 상류(上流)의 성주(星州) 지방(地方)에 분포(分布)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서안(西岸)은 일봉토(一封土) 일석실(一石室)인데 동안(東岸)에는 일봉토(一封土) 다곽(多槨)의 예(例)가 있어서 좋은 대조(對照)를 보이고 있다¹⁾.

그런데 본(本) 초당동(草堂洞) 제일호분(第一號墳)은 석실분(石室墳)에는 틀림없으나 진정(眞正)한 의미(意味)의 수혈식(竪穴式)인지 횡구식(橫口式)인지는 불행(不幸)하게도 동측벽(東側壁)이 발굴(發掘)전(前)에 파손(破損)되어 밝힐 수가 없었으나 창녕(昌寧)²⁾ 고령(高靈)³⁾ 등(等) 남(南)쪽지방(地方)의 세장(細長)하다고 부를 수 밖에 없는 석실(石室)구조(構造)와는 달리 차라리 성주(星州) 성산동(星山洞) 일호분(一號墳) 이호분(二號墳) 육호분(六號墳)⁴⁾, 대구(大邱)부근의 달성(達成)⁵⁾, 선산(善山)⁶⁾ 등지(等地)와 의성(義城)의 개석(蓋石)대신에 목재(木材)를 사용(使用)한 듯한 석곽분(石槨墳)⁷⁾ 등과 통(通)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주(慶州)부근의 고분(古墳)은 대형(大形)봉토(封土)의 적석목석실분(積石木石室墳)이 있어서 초당동(草堂洞)의 개석(蓋石)을 덮은 장방형석실구조(長方形石室構造)는 구조면(構造面)만으로는 경주(慶州)지방(地方)과는 연관(關) 곽분(槨墳)과 이도(義道)가 딸린 방형(方形) 내지(乃至)는 방형(方形)에 가까운 석질분(石質墳)이 있어서 초당동(草堂洞)의 개석(蓋石)을 덮은 장방형(長方形) 석실구조(石室構造)는 구조면(構造面) 만

1) 全古姬：伽倻墓制의 研究，梨大史苑第3輯 1961，pp.37-75.

2) 大正七年度古蹟調査報告 第1冊

3) 同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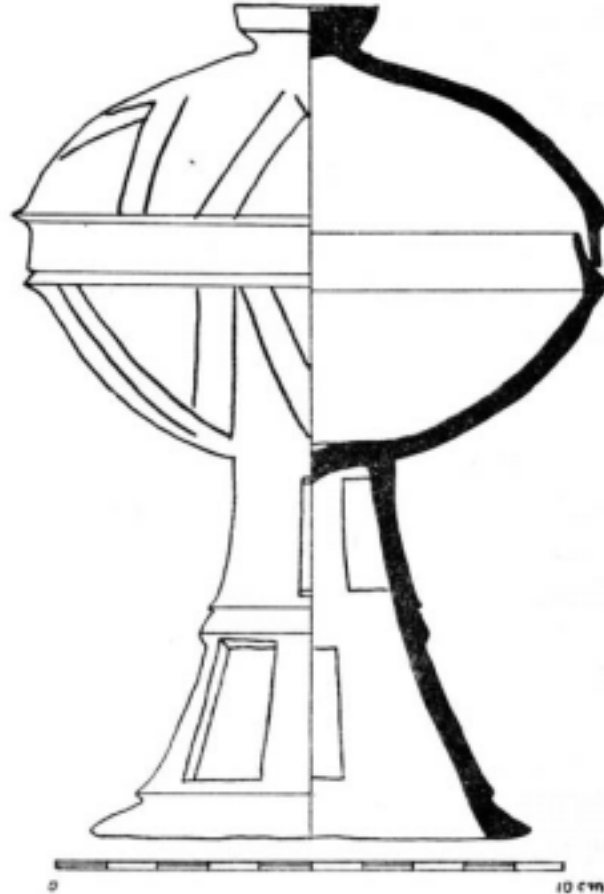
4) 同書

5) 大正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 第1冊.

6)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第1冊.

7) 金載元 尹武炳：義城塔里古墳，國立博物館 古蹟調査報告 第3冊. 1962.

으로는 경주(慶州)지방(地方)과 는 연관을 지을 수가 없고 오히려 창녕(昌寧) 성주(星州) 대구(大邱) 선산(善山) 의성(義城) 등 외곽지대(外廓地帶)와 통(通)하는 것 같다.



草堂洞 出土 高杯

그러나 토기(土器)에 있어서는 가야군(伽倻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적색토기(赤色土器) 완(盃)이 출토(出土)되며 게다가 고배(高杯)의 기신(器身)이 가야군(伽倻群)에서는 평편(平扁)한데 비(比)해 오목한 신라군식(新羅群式)이고 투창(透窓)도 신라군(新羅群)에서 전형적(典型的)인 상하(上下)가 엇갈린 이단식(二段式)이 출토(出土)되었다. 이런 토기(土器)들은 낙동강(洛東江) 동편(東便)의 신라고분(新羅古墳)의 적석총(赤石冢), 석실분(石室墳)에서 공(共)히 출토(出土)되고 있으며 멀리는 남(南)쪽 동래복천동(東萊福泉洞)으로부터⁸⁾ 창녕장동(昌寧杖洞)⁹⁾ 그 북(北)쪽으로 낙동강(洛東江)상류(上流)의 약간 서안(西岸)이기는 하지만 토기(土器)가 신라군(新羅群)에 속(屬)하는 성주(星州) 성산동(星山洞) 고분(古墳)¹⁰⁾과 대구(大邱) 부근의 칠곡(漆谷)¹¹⁾, 왜관(倭館) 서북(西北)

8) 이것은 69年 住宅團地 造成中 發見된 것으로 筆者等이 調査한 것인제 8個의 蓋石을 덮은 長方形 竪穴式 石室墳 (830cm×130cm)으로 新羅土器, 鐵刀, 鐵鋌, 金銅寶冠等이 出土된바 있다. 遺物中 高杯는 新羅群에 屬하는 것으로 높은 冢台中 伽倻群의 影響을 받은 것도 있었다. 遺物은 현재 東亞大에 保管中임.

9) 大正七年度 古蹟調査報告 第1冊.

10) 同書.

쪽의 약목(若木)¹²⁾ 등지(等地)의 전(全) 신라문화권(新羅文化圈) 지역(地域)에서 출토(出土)된다.

장경호(莊頸壺)의 경우도 신라군(新羅群)의 특징(特徵)이라고 할 수 있는 다리(臺)가 달려 있다는 점(點), 또 백제문화(百濟文化)의 영향(影響)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좁고 높다란 감대(坩臺)가 가야군(伽倻群)에 많은데 그것이 초당동(草堂洞) 제일호분(第一號墳)에서는 없었다는 점(點), 토기(土器)의 문양(文樣)에도 가야군(伽倻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토기개(土器蓋) 꼭지를 따라 돌고 있는, 단사선문(短斜線文) 열점문(列點文) 등(等)이 전무(全無)하고, 출토(出土)된 고배(高杯) 9개중(個中) 일개(一個)의 기신(器身)에, 고배개(高杯蓋) 8개중(個中) 7개(個)에 八형(形) 기하학문(幾何學文)이 있었을 뿐이고, 한 개의 장경호(莊頸壺)에 일조(一條)로 된 파상문(波狀文)이 삼개처(三個處)에 시문(施文)되어 있었을뿐 나머지는 모두 무문(無文)이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즉 이 기하학문(幾何學文)이 압도적(壓倒的)인데 이 기하학문(幾何學文)도 신라군(新羅群)에서 주류(主流)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게 본(本) 고분(古墳)은 유물상(遺物上)으로는 신라문화권(新羅文化圈) 중(中) 경주지역(慶州地域)과 연결(連結)되고 있다. 구조상(構造上)으로는 신라(新羅)외곽지대(外廓地帶)의 전통(傳統)을 지니고 있으면서 유물(遺物)은 경주중심(慶州中心)의 신라문화(新羅文化)에 직결(直結)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고분(古墳)의 축조년대(築造年代)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강릉지방(江陵地方)에 대한, 사실(史實)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태백산맥(太白山脈) 동(東)쪽 해안(海岸)에 위치(位置)하고 있는 강릉(江陵)은 옛날에(濊)의 고지(故地)였고 한사군시대(漢四郡時代)는 임둔군(臨屯郡)에 속(屬)하였었다. 고구려(高句麗)의 세(勢)가 강성(強盛)하던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392~412)과 장수왕(長壽王)(412~491) 때에는 일시(一時) 고구려(高句麗)의 남침(南侵)을 받았다. 신라(新羅)와의 최초관계는 파사왕(破娑王) 22년(年)(AD 101) 실직곡(悉直谷)을 병합(併合)하였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¹³⁾ 그 후(後) 신라(新羅)가 왕국(王國)으로서의 체제(體制)를 갖춘 후(後) 주군현제(州郡縣制)를 확립(確立)하여 삼척(三陟)을 중심(中心)으로 실직주(悉直州)를 둔 것이 지증왕육년(智證王六年)(AD 505)이었고 그 후(後) 진흥왕(眞興王)(AD 540~576) 대(代)에 이르러서는 멀리 함경도(咸鏡道)에 까지 세력(勢力)을 뻗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신라(新羅)가 삼국(三國)을 통일(統一)하였을 때의 강성(疆城)은 동(東)으로 원산(元山), 안변(安邊)으로부터 서(西)로는 대동강이남(大洞江以南)의 전지역(全地域)을 확보(確保)한 것이다. 그러므로 강릉지방(江陵地方)에 신라고분(新羅古墳)이 존재(存在)할 가능성(可能性)이 충분(充分)히 있으며 삼척(三陟)에도 삼국시대(三國時代) 고분(古墳)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보고(報告)가 있다.¹⁴⁾¹⁵⁾

그러면 본(本) 초당동(草堂洞)고분(古墳)이 경주중심(慶州中心)의 신라문화권(新羅

11) 慶北大學校博物館：漆谷郡 仁同面 黃桑洞, 不老洞, 古靈 古衛 發掘調査報告 1966.

12) 경북대학교박물관：若木古蹟調査報告 1961.

13) 三國史記 婆娑尼師今條에 「……悉直, 押督 2國王 來降…」을 볼 수 있는데 悉直이 三陟을 中心으로 하였다고 하지만 江陵地方도 悉直에 包含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14) 朝鮮古蹟圖譜三, 圖310, 圖311.

또 가까운 □州郡 下詩洞에서도 1970年 8월에 七個의 파괴된 石室古墳이 文化財研究室에 依하여 조사된바 있는데 出土物은 長頸坩, 赤色土器, 高杯, 제갈, 갑주, 금제귀걸이, 방추차 등이 出土되었다. (박물관 뉴스 제4호 참조)

15) 趙東杰：江陵地方의 先史文化研究, 春川教育大學 論文集 5-1 1968. 註 31.

文化圈)안에 들어있다는 성격(性格)이 뚜렷한 바 당연(當然)히 신라(新羅)가 강릉지방(江陵地方)을 명실(名實)공(共)히 지배(支配)한 후(後)에 그것이 축조(築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조사(調查)된 경주지방(慶州地方)의 고분중(古墳中) 시대(時代)를 추정(推定)할 수 있는 것은 호간총(壺杆塚)¹⁶⁾, 금관총(金冠塚)¹⁷⁾, 금령총(金鈴塚)¹⁸⁾, 식리총(飾履塚)¹⁹⁾, 황오리(皇吾里) 33호(號)²⁰⁾ 등(等)의 대형(大形)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이 고신라(古新羅)의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충효리(忠孝里)의 이도(美道)가 달린 방형(方形) 내지(乃至)는 방형(方形)에 가까운 석실분(石室墳)²¹⁾, 서악리(西岳里) 석실분(石室墳)이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로²²⁾, 황남리(皇南里) 151호(號)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이 7세기경(世紀頃)으로 추정(推定)되고 있다²³⁾.

이들 고분(古墳)에서 출토(出土)되는 토기(土器)들과 본초당동(本草堂洞) 제일호분(第一號墳)을 비교(比較)해 보면 초당동(草堂洞) 제일호분(第一號墳)에는 우선(于先) 사교선(斜交線) 기하학문(幾何學文)만이 있는 점(點), 다리가 길고 기신(器身)이 오목한 유개고배(有蓋高杯)라는 점(點) 등(等)이 신라토기(新羅土器)로서 후기(後期)라고 볼 수가 없으나 고식(古式)에서 많이 보이는 화려(華麗)한 장식이나, 이형토기(異形土器)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고식(古式)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생각된다. 이런 사실(事實)들을 사실(史實)과 함께 생각해 볼 때 본(本) 고분(古墳)은 신라(新羅)의 세력이 지방(地方)에서 완전(完全)히 뿌리를 박기 시작한 6세기(世紀)이후(以後)로부터 통일기(統一期)의 토기(土器)가 출현(出現)하기 전(前)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묘(墓)의 주인공(主人公)은 이 지역(地域)이 경주(慶州)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경주(慶州)를 중심(中心)으로 한 신라지배계급(新羅支配階級)의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이 아니고 석실분(石室墳)이라는 점(點)으로 미루어봐서 지배계급(支配階級)과는 신분(身分)이 달랐거나 출신지(出身地)가 다른 인물(人物)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다만 이번 단(單)한개의 고분(古墳)만으로 강릉고분(江陵古墳)의 성격(性格)을 획일적(劃一的)으로 단정(斷定) 한다는 것도 불가능(不可能)한 일이고 또 석실(石室)의 구조(構造)도 대파(大破)되어 있어서 세세(細細)한 구조(構造)를 밝혀내지 못했음도 자인(自認)하는 바이다. 앞으로 또 이 지역(地域)에서 더 완전(完全)한 자료(資料)로서 강릉고분(江陵古墳)의 성격(性格)을 밝힐 수 있을 기회(機會)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6)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 第1冊. 여기서 나온 副葬品에 「乙卯年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라는 銘文이 있어 AD 415년으로 比定된 것이다.

17) 慶州古蹟調查特別報告 3, 1924

18) 大正三十年代 古蹟調查報告 第1冊.

19) 同書

20) 秦弘燮：皇吾里 第三十三號墳, 文化財管理局 古蹟調查報告 第2冊 서울 1969 pp. 83

21) 昭和七年度 古蹟調查報告書 第2冊

22) 朴日薰：皇南里 第151號墳, 文化財管理局 前掲書 pp.128

23) 尹武炳 朴日薰：慶州 西岳里 石室墳 發掘報告. 考古學 第一輯 서울 1968 pp.95.